

광주 제조업 경제유발효과 '전국 최하위권'

생산유발효과 비중 59% 불과...도·소매업, 일자리 창출 비율 90%·생산유발효과 76% 달해

광주지역 소상공인 산업 편중이 심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 부문이 유발하는 지역경제 효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모형 개발 및 추정' 보고서에 담겼다.

소진공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전국사업체조사자료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각종 유발계수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소상공인 부문이 지역경제에 미친 각종 유발효과와 그 효과의 지역 내 비중을 계산했다. 이번에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소상공인의 대표 업종은 세 가지 산업 가운데 광주 지역은 도·소매업 지역경제 효과 비중이 높고 제조업

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소상공인 부문의 취업유발 효과는 광주 21만1000명·전남 19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유발 효과의 지역 내 비중을 따져보면 광주 비율은 90%로, 전국 평균(87%)을 웃돌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의 지역 내 효과 비율은 87%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광주 도·소매업 소상공인들이 창출한 생산유발 효과는 13조356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조3710억원이었다. 지역 안에서 작용하는 효과 비중은 생산유발 76%, 부가가치유발 82%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남 도·소매업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발휘하는 효과는 생산유발 74%, 부가가치유발 79%로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 도·소매업 소상공인이 만들어낸 생산유발

효과 비중은 76%에 달했지만 제조업은 59%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광주 제조업 생산유발 효과는 4조1070억원으로, 세종(8550억원)과 제주(1조3170억원)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서는 최저 수준이다.

광주 제조업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유발 효과의 지역 내 비중 역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19년 기준 1조3920억원으로, 지역 내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 63%보다 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광주 제조업 소상공인들의 취업유발 효과는 광주 1만9000명으로, 도·소매업 취업유발 효과(21만1000명)의 11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제조업 취업유발 효과가 지역에 미치는 비중도 56%로, 전국 평균(62%)과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광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취업유발 효과는 90%가 지역 내에서 발생함으로써 도·소매업이 지역 고용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반면 "광주 제조업 소상공인 부문의 생산유발 효과의 지역 내 비중은 적다. 수도권 제조업 생산유발 효과는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광주 음식·숙박업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부문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 소상공인들의 생산유발 효과는 8조4190억원으로, 지역 내 비중은 전국 평균(67%)을 밑도는 62%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 비율(60%)과 취업유발 효과(72%)도 각각 전국 평균(65%, 75%)을 밑돌았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소상공인들의 업체당 평균 카드 매출액 변화를 분석했는데, 지역 감소율은 광주 37.2%·전남 39.4%로, 두 지역 모두 전국 감소율(-37.1%)을 웃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기업 위기극복 지원 모색 광주상의, 간담회 열어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2시 '지역기업 경영 및 자금 위기극복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자금사정 및 경영현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기업,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관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에 맞는 정책자금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PS, 지역발전 공로 '도지사 표창'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KPS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한전KPS는 지난 14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전남도지사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한전KPS가 사회적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다양한 사회복지 유공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한전KPS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부터 3년여간 자체 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을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및 광주전남 생활치료센터로 무상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이바지했다.

비대면 코로나19 검사 공간인 워크스루를 지역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 설치하기도 했다.

또 한전KPS는 회사의 고유업(業)을 활용해 의료기관 비상발전 설비를 사전 진단하고 사고·고장을 예방하는 'KPS-케어' 지원사업을 폭넓게 펼쳤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는 '빛나눔 태양광패



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더 폭넓게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사회 가치 실현 정책을 통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시상식에서 2개 단체와 28명의 개인 수상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력거래소, 실시간 수급안정 운영협의회

전력거래소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42개 회원사 중 34개 회원사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3회 실시간 수급안정 운영협의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실시간 수급안정 운영협의회는 전력거래소와 회원사 간 대면 모임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간헐성 증대와 경직성 전원의 발전비중 증가 등을 목표로, 안정적인 계통운영과 탄소중립 이행 해법을 찾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간발전사의 계통계약에 따른 잦은 발전기 기동 정지 현안과 현장 애로 사항을 공유했다.

발전기 기술특성을 반영한 불시기동시험 방안과 국내 관성자원 확보 추진 방안, 제약연발전기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 수급 관리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각 회원사는 발전기 운영 때 발생하는 현상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

민간발전 회원사 측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의 가스연료 수급 예측에 필요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수급운영팀장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계통운영의 변화는 거래소와 발전소 현장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내·외부 관계자들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美·英발 훈풍'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

외국인 12거래일째 순매수

코스피가 18일 미국·영국발(發) 훈풍을 타고 2250선 턱밑까지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24포인트(1.36%) 오른 2249.9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233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오전에 순매도를 보였으나 점차 매수 우위로 돌아서 611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인 지난날 29일부터 이날까지 12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 연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기관도 1597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밤 미국 뉴욕증시가 기대 이상의 기업실적과 영국 금융시장 안정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18%)와 LG에너지솔루션(-0.51%) 정도를 제외하고는 LG화학(6.26%)과 네이버(NEVER)

(3.29%), 셀트리온(4.13%) 등 대부분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다.

주말에 카카오톡 '떡통' 사태를 겪은 카카오톡도 전 날 급락에서 벗어나 반등해 2.17%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09포인트(2.21%) 오른 697.0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00억원, 32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 홀로 778억원 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7조1750억원, 6조940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9.95(+30.24)
↑ 코스닥	697.09(+15.09)
↑ 금리(국고채 3년)	4.242(+0.003)
↓ 환율(USD)	1422.70(-12.60)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주말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창립 54주년을 기념하는 '2022 KJ 카드 콘서트'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열었다. 이날 초청된 다문화가정 60명과 광주지역 소방공무원 119명 등 총 5000여 관객이 공연을 관람했다. <광주은행 제공>

3년을 기다렸다 'KJ 카드 콘서트'

광주은행 54주년 기념 가수 이승철·홍진영 등 무대...5000여 관객과 호흡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2 KJ 카드 콘서트'에 5000여 관객이 호흡하며 막을 내렸다.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창립 54주년을 기념하는 '2022 KJ 카드 콘서트'를 성공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된 이후 3년 만에 치러졌다.

이날 가수 이승철과 다비치, 홍진영, 광주 출신 재즈보컬 고이라 동신대학교 교수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호흡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다문화가정 60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화제 현상 및 위급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광주 소방공무원 119명을 무료 초청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만에 연 'KJ 카드 콘서트'인 만큼 지역민·고객과 함께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됐길 바란다"며 "'KJ 카드 콘서트'가 지역 대표 공연·행사로 자리 잡아 지역 공영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 더욱 품격 있는 콘서트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항구화를"

광주 중소 제조업체, 주52시간제 시행 어려움 토로

중소 제조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3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면서 지역 제조업체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날 20~27일 중소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규모가 30~49인, 50~2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39.6%),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 순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응 방안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이었다. 응답자의 20.9%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5~29인 기업의 52.0%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중소기업계의 고충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절실한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 가전제품 부품 제조, 조선업 등 하청업체들이다. 정해진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탓에 주문 물량이 증가할 경우 연장근로 없이 납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세 업체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채용을 해도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지출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계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며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구인이 버텼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교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